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환

김상배 엮음

한울
아카데미

한울 아카데미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e-CIP홈페이지(<http://www.nl.go.kr/ecip>)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CIP제어번호 : CIP2011005465)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환

한울

김상배 엮음

아카데미

한울

아카데미

이 책은 지구화와 정보화의 시대를 맞이하는 세계정치의 변환을 탐구하기 위해서 지난 십여 년 동안 벌여온 연구의 연속선상에 있다. 이러한 연구는 지난 수년 동안 ‘네트워크 세계정치’라는 제목하에 새로운 작업의 지평을 개척하고 있다. 인간에 비유하면 이제 막 청소년기에 접어든 네트워크 세계 정치의 연구는 은유의 차원에서 개념을 고안하고 적용하던 유년기의 단계를 넘어서 좀 더 분석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론을 개발하고 경험적 사례를 탐구해야 할 전환기에 놓여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네트워크 세계정치 연구를 풍요롭게 할 체계적 이론의 개발과 경험적 사례의 발굴을 목표로 준비되었다.

앞서 작업에 비해 이 책은 최근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네트워크와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을 좀 더 면밀히 천착했다. 이러한 탐색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원용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이론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라는 사실이었다. 이 책의 제1장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네트워크 이론은 인식론이나 방법론의 관점에서 볼 때

적어도 세 가지 진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정치의 변환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이론 진영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선택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모두 복합적으로 원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인식이다.

이러한 복합적 원용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최근 벌어지고 있는 네트워크 세계정치라는 현실 자체가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네트워크 현상이라고 부르는 현실도 ‘한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그 구성원이나 작동방식이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들이 복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고자 하는 세계정치의 변환도 획일적인 동종(同種)의 현상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모순될 수도 있는 이종(異種)의 현상들이 동시에 겹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복합의 현실에 대한 고민은 『거미줄 치기와 벌집 짓기』라는 다소 비유적인 이 책의 제목 안에 담겨 있다.

네트워크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비유는 아마도 거미가 아닐까 싶다. 거미가 자신의 주위에 거미줄을 치는 모습이 최근 국제정치의 행위자들이 벌이고 있는 네트워킹의 전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거미줄처럼 서로 얽히고설키는 네트워크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네트워크 시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넷의 핵심인 웹(즉, 월드와이드웹)도 거미줄에서 그 용어가 유래했다. 이러한 세상의 변화는 기존에는 부국강병의 단순전략에만 치중하던 국가 행위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목표를 여러 민간 행위자들과 더불어 복합적으로 추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오랫동안 국제정치의 주역이었던 국가의 형태도 그 영토적 경계의 안과 밖에서 점점 더 네트워크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그런데 네트워크 이야기에는 거미만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꿀벌들도 또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 이야기를 들려준다. 국가 행위자의 네트워킹 전략

이 혼자 활동하는 거미의 줄치기를 연상케 한다면,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초국적으로 활동하는 비(非)국가 행위자들의 네트워크는 여럿이 협업하는 꿀벌들의 집짓기를 떠오르게 한다. 이러한 꿀벌들의 협업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은 하나의 중심이 있는 거미줄의 네트워크에 대비시켜 보는, 여러 개의 중심을 가진 벌집과도 같은 네트워크이다. 웹의 비유로만 보더라도 벌집의 네트워크는 웹2.0의 이야기에 가깝다. 최근 이러한 벌집의 네트워크가 부쩍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른바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기반으로 하여 예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끼리끼리 모이는 힘’을 발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오늘날의 세계정치에서는 거미줄 치기로 비유되는 네트워크 현상과 벌집 짓기로 비유되는 네트워크 현상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인식이다.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려는 국가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전략과 기존 국제정치의 틀을 넘어서려는 비국가 행위자들의 초국적 네트워크가 병존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 현상이 서로 경합을 벌이면서 새로운 질서를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네트워크 간의 정치(inter-network politics)’, 즉 망제정치(網際政治)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망제정치의 복합적인 현실을 이론적·경험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은 앞으로 네트워크 세계정치 연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끝으로 한 가지 비유를 더해보자. 거미와 벌에 대한 비유를 찾느라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거미라는 말과 벌이라는 말을 합성한 ‘거미벌(spider bee)’과 ‘벌거미(bee spider)’라는 생물이 실제로 자연에 서식하고 있음을 알고 놀란 적이 있다. 거미벌은 북미 대륙에서 서식하는 벌인데 날개와 독침으로만 보면 꿀벌이지만 그 다리는 거미 모양을 하고 있고 게다가 거미줄을 치는 능력까지 보유하고 있어서 거미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벌거미는 기본적으로 습성은 거미인데 그 몸통의 색깔과 무늬가 꿀벌을 연상시키

는 형상이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전형적인 거미도 아니고 전형적인 꿀벌도 아니면서 양자의 습성을 복합적으로 지닌 생물체가 더 존재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상상의 날개를 펼쳐보면, 언젠가는 ‘거미벌의 세계정치’나 ‘벌거미의 세계정치’라는 글을 쓰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지난 1년 동안 ‘2010년도 한국사회기반연구사업 (Social Science Korea, 이하 SSK)’이라는 큰 틀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동아시아 네트워크 세계정치’ 연구의 여러 트랙(네트워크 세계정치 홈페이지, <http://www.networkpolitics.ne.kr> 참조) 중에서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들과 진행한 작업의 결과물이다. 박사급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연구를 다양한 형태로 확산시킨다는 SSK프로젝트의 사업 취지에 부합하여 석·박사 과정의 학문후속세대의 교육과 연구를 진작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이 책의 집필에 참여한 대부분의 필자들은 연구보조원으로서 SSK프로젝트의 각종 세미나 진행과 자료조사 작업 등에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직접 동아시아 네트워크 세계정치와 관련된 주제들을 탐구하는 기회를 가졌다.

이 책의 필자들은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대학원(외교학 전공)에서 2010년 2학기과 2011년 1학기에 걸쳐서 각각 “탈근대세계정치연구: 네트워크 세계정치”와 “정보세계정치연구: 글로벌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정치”라는 주제의 대학원 세미나 수업에 참여하였다. 이렇게 두 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통해서 작성된 기말논문들은 2011년 1월과 7월의 두 차례에 걸쳐서 방학 중 집중 세미나를 통해서 다듬어졌다. 여러 차례의 코멘트와 수정작업이 오가는 피드백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보완된 형태로 다시 집필되고 그 중에서 세미나실 밖의 독자들에게 소개할 만한 글들을 선별하여 이렇게

책으로 묶게 되었다. 아직 학업 중에 있는 대학원생들의 작업이라 글 자체의 완성도가 다소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네트워크 세계정치 연구의 현 주소와 향후 방향을 보여주는 데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용기를 내게 되었다.

이 책이 완성되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특히 지난 1년 동안 까다로운 코멘트를 기꺼이 수용하며 집필에 참여해준 여섯 명의 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사실 이 책의 작업은 개별 필자들의 글을 단순히 묶어놓은 것이라기보다는 명실상부하게 여럿이 하나가 되는 ‘집합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실험적 결실이다. 이렇게 중지(衆智)를 모으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지적 성장을 지켜보는 일은 더할 나위 없이 큰 즐거움이었다. 또한 이 책의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면으로 지원해주신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배영자 교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의 신범식 교수, 충남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의 고봉준 교수, 울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치욱 교수 등 네 분의 SSK프로젝트 연구진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이 밖에도 대학원 세미나와 방학 중 집중 세미나에서 참석하여 토론을 벌였던 여러 학생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을 수 없다.

2011년 12월 15일

김 상 배

거미줄 치기와 별집 짓기: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세계정치의 변환

차례

책머리에 5

제 1 장

네트워크 이론의 국제정치학적 원용 김상배 15

1. 머리말 ■ 15
2. 네트워크 조직이론의 원용 ■ 20
3. 사회-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 29
4.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 43
5. 이 책의 구성 ■ 57

제1부 거미줄 치기의 국제정치

제 2 장

군사변환과 변환외교의 국제정치: 미국의 네트워크 전략 최인호 71

1. 머리말 ■ 71
2. 네트워크로 보는 미국의 변환전략 ■ 74
3. 네트워크 전략의 세 모으기 ■ 80
4. 변환전략의 네트워크 구조 ■ 84
5. 프레임 설계의 네트워크 전략 ■ 88
6. 맺음말 ■ 94

제 3 장

주권과 인권의 국제정치: 중국정부의 전략적 대응 김윤희 103

1. 머리말 ■ 103
2.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원용 ■ 107
3. 인권의 문제제기와 주권의 프레임 짜기 ■ 111
4. 탈근대적 공격과 근대적 대응: 맺고 끊기 ■ 118
5. 중국식 인권의 표준화와 세 모으기 ■ 123
6. 인권의 국제표준 경쟁 ■ 125
7. 맺음말 ■ 128

제 4 장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의 국제정치 송태은 135

1. 머리말 ■ 135
2. 네트워크로 보는 한·일 독도영유권 논쟁 ■ 138
3. 일본의 독도 분쟁화와 한국의 독도주권 인정화 ■ 143
4. 일본의 독도 논쟁 국제화와 한국의 지적 반격 ■ 147
5. 한국 네티즌의 감시·고발과 일본 네티즌의 항의·교란 ■ 154
6. 한·일의 독도 네트워크 견고화 전략 ■ 159
7. 맺음말 ■ 162

제2부 벌집 짓기의 세계정치

제 5 장

웹2.0과 인권 네트워크의 세계정치: 국제앰네스티의 사례 권민주 169

1. 머리말 ■ 169
2. 정보통신기술과 초국적 네트워크의 분석틀 ■ 173
3. 국제앰네스티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 178
4. 웹2.0과 국제앰네스티의 활동 제약 ■ 180
5. 국제앰네스티의 재적응 ■ 187
6. 맺음말 ■ 199

제 6 장

아시아 녹색혁명의 네트워크 세계정치 김윤희

205

1. 머리말 ■ 205
2.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의 국제정치학적 원용 ■ 210
3. 아시아 녹색혁명의 시작 ■ 214
4. 행위자-네트워크의 설계 ■ 218
5. 행위자-네트워크의 확장 ■ 223
6. IRR의 대변자들과 기술정치 ■ 228
7. 맺음말 ■ 233

제 7 장

결혼이주여성의 네트워크 세계정치: 한국의 사례 이윤주

241

1. 머리말 ■ 241
2.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결혼이주여성 ■ 246
3. 네트워크 '행위자'로서 결혼이주여성 ■ 251
4. 결혼이주여성의 초국적 네트워크 '구조' ■ 258
5. 결혼이주여성 네트워크 권력의 형성 '과정' ■ 265
6. 맺음말 ■ 274

아카데미

제3부 거미줄과 벌집의 망제정치

제 8 장

사이버 안보의 망제정치: 사이버 창이나? 디지털 방패나? 최인호

285

1. 머리말 ■ 285
2. 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사이버 안보 ■ 289
3. 네트워크 행위자의 부상: 분산된 군단과 디지털 동맹 ■ 294
4. 사이버 망제정치의 중심: 착취현과 네트워크 댄장이 ■ 304
5. 사이버 블랙박스의 설계와 해체: 번역과 반역 ■ 311
6. 맺음말 ■ 318

제 9 장

국제개발협력의 망제정차: 유엔 새천년마을의 사례 김지연 327

1. 머리말 ■ 327
2. 네트워크로 보는 국제개발협력 ■ 332
3. 국제개발협력사업과 유엔의 역할 ■ 338
4. 네트워크 조직으로서 유엔 새천년마을 ■ 348
5. 유엔의 새천년마을 네트워크 전략 ■ 361
6. 맺음말 ■ 367

제 10 장

천안함 사건의 망제정차: 진실게임, 신뢰게임, 집합게임 송태은 375

1. 머리말 ■ 375
2.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으로 보는 천안함 사건 ■ 378
3. 과학수사의 진실게임과 천안함 블랙박스 열기 ■ 383
4. 해석적 정당성의 신뢰게임과 천안함 담론의 정치화 ■ 392
5. 국제무대에서의 집합게임과 한국정부의 세 모으기 ■ 399
6. 맺음말 ■ 407

표·그림 목차

〈그림 1-1〉	위계조직에서 네트워크로	23
〈그림 1-2〉	아시아의 무기 이전 네트워크	33
〈그림 1-3〉	네트워크 지형도	35
〈그림 1-4〉	구조적 공백	37
〈그림 1-5〉	의무통과점	52
〈그림 1-6〉	관심끌기의 삼각형	53
〈그림 1-7〉	네트워크 전략의 4단계	56
〈표 4-1〉	한·일 독도 논쟁의 번역 4단계	143
〈표 4-2〉	독도의 영토귀속 여부 표기 방식	150
〈그림 5-1〉	캠페인 링크	189
〈표 6-1〉	지역별 1인당 곡물생산량의 비교	214
〈그림 6-1〉	필리핀의 쌀 생산량 추이(1961~1970)	226
〈표 6-2〉	IRRI 프로그램의 국가별 참여자 수와 방문기간	228
〈표 6-3〉	IRRI 중심 예산 및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현황(1960~1970)	231
〈표 7-1〉	국적별 결혼이민자(국민의 배우자) 체류 현황(2009.12.31 현재)	243
〈표 7-2〉	디아스포라와 국민국가의 조직·공간체계	252
〈표 7-3〉	온라인 형태의 결혼이주여성 네트워크	253
〈그림 7-1〉	한국사회의 결혼이주여성 이 맺는 사회 네트워크	264
〈그림 8-1〉	사이버 사건 발생 추이	295
〈표 8-1〉	주요 디도스 공격 사례	297
〈그림 9-1〉	새천년마을 사업 현황	328
〈그림 9-2〉	빈곤감소전략의 네트워크: 단허브형 네트워크	342
〈그림 9-3〉	단허브형 네트워크의 구조적 공백	346
〈그림 9-4〉	새천년마을 사업의 네트워크: 탈허브형 네트워크	350
〈그림 10-1〉	진실게임의 대항 네트워크	387
〈그림 10-2〉	아고라 토론방에서의 찬안함 관련 일일 토론건수	391
〈그림 10-3〉	집합게임의 대항 네트워크	402